

미혼남녀의 자기관이 결혼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이성관계의 경험의 매개효과

김 수 경

신명중학교

최 승 미[†]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본 연구에서는 20대에서 30대 초반의 미혼남녀 266명(남성 134명, 여성 132명)을 대상으로 자기관이 결혼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이성관계 경험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성별, 학력 및 경제수준 등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자기관 및 결혼가치관, 이성관계경험에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둘째, 결혼의향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들을 살펴본 결과, 이성관계경험 및 학력수준, 결혼가치관 등은 결혼의향을 유의하게 예측하고 있어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이성관계경험 및 결혼가치관을 가지고 있을수록 결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미혼남녀의 자기관과 결혼가치관 관계에서 이성관계경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이성관계경험을 매개로 결혼가치관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독립적 자기관은 보수도구적 결혼가치관에 직접효과만을 보였다. 연구 결과, 자기관의 유형에 따라 결혼가치관에 차이를 보였으며,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건강한 이성관계를 매개로 유의하게 긍정적인 결혼가치관 형성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미혼남녀, 자기관, 결혼 가치관, 이성관계 경험

[†] 교신저자 : 최승미,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시 노원구 광운로 20
E-mail : kucc1905@kw.ac.kr

우리사회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2018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건국 이래 최초로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져 0.98명을 기록하고 있다(통계청, 2019). 이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유일한 사례로, 바로 위 단계인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2016년 기준 1.34명의 출생율을 보이는 것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정은주, 박현정, 2019).

낮은 출산율의 배경에는 사회, 문화, 경제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자리하고 있으나, 가장 직접적으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낮은 혼인율과 가임여성 인구의 감소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한해 평균 30~40만건을 유지하던 혼인건수가 2016년에는 20만건대로 감소했으며, 현재까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보수적 가치가 강한 우리 사회에서 혼인은 출산의 선행지표로 인식되는 바, 낮은 혼인율은 곧 낮은 출산율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한 보고에 따르면 2015년을 기점으로 국내 20-30세대 혼인가정의 출산율은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전체적인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김태훈, 2019). 다시 말해, 혼인 가정의 출산율이 안정화를 보임에도 동세대의 혼인율 자체가 떨어지면서 합계출산율 또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혼인율의 감소는 만혼 내지 비혼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남녀모두 초혼 연령이 30대 이후로 높아졌으며, 초산연령 또한 상승하여 2018년 현재 31.9세를 보이고 있다(통계청, 2019). 초산연령의 상승은 첫 자녀 이후 자연적인 임신 가능성을 낮출 뿐 아니라 자녀 양육에 필요한 재원 마련으로써 고용기간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하여 둘째 이상의 자녀를 갖

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해가 갈수록 낮아지는 혼인율의 배경에는 사회, 경제, 문화, 환경 등 다양한 요소들이 자리하고 있으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자기관과 결혼, 출산,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를 지지하듯 지난 10여년간 사회경제적 환경 개선에 초점을 둔 정부의 저출산 대책들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최근 들어 제기되면서 ‘국가주도식 경제 지원’에서 ‘삶의 질의 제고’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등장하고(한창식, 2019), 젊은 세대의 변화된 가치관과 자기관을 고려해 그들의 삶 속에서 결혼과 출산이 갖는 의미를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과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최영미, 박윤환, 2019).

경제적 풍요와 위기의 극단치를 경험하고 20세기와 21세기 모두를 살아내고 있는 오늘날의 2030세대는 ‘나’라는 키워드로 정의되는 독특한 세대문화를 지니고 있다(전시현, 2017). 즉, 일상의 작은 소비나 취미활동 뿐 아니라 직장을 선택하고 누구를 만나 어떤 삶을 살 것인가의 모든 결정의 중심에 ‘나’를 두고 ‘나’를 위한 선택과 집중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들을 서구적 개념의 지나친 개인주의자, 이기주의자로 바라보기에는 이들 세대가 보여주는 높은 사회적 관심과 정치 참여, 다양한 문제에 진지한 고민을 보이는 모습 등이 공존한다. 집단 대 개인, 전체와 부분식의 이분법적 분리가 아닌 개인이 중심이 되, 사회와의 연대 또한 고민하는 독특한 세대적 특성을 보이며, ‘전체를 위한 개인의 일방적 희생’ 혹은 ‘집단의 논리에 떠밀리는 개인’에 대한 적극적인 거부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연애와 결혼, 자기관, 결혼 가치관에 대한 이해는 젊은 세대의 낮은 혼인율과 출산율 대책

마련에 앞서 고려되어야 할 과제라 할 것이다.

자기관(self-construal) 혹은 자기해석이란 개인이 자신을 어떤 존재로 규정하며 무엇에 가치를 두고 의미를 부여하는가와 관련된 개념으로(Fiske, Kitayama, Markus, & Nisbett, 1998), 타인과 구분되는 독특성과 고유성인 동시에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 및 내면화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흔히 개인주의로 표현되는 서구 문화권에서는 독립적 자기관(independent self-construal)이 우세한 반면, 유교적 집단주의 문화권인 동아시아에서는 관계 중심의 상호의존적 자기관(interdependent self-construal)이 좀더 우세한 점은 이러한 상호작용의 예가 반영된 결과이다(Markus & Kitayama, 1991).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독립적 자기관은 타인과 구분되는 존재로서 자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바, 이러한 자기관이 우세한 사람들에게 타인과의 경계감 유지는 무엇보다 중요한 안건이 될 수 있으며 타인과 구분되는 자신만의 고유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생각과 감정, 행동에 좀 더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타인과 연결된 존재로서 자기에 보다 초점을 둔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우세한 사람들에게는 타인과의 결속 유지 및 관계 속에서의 자신의 위치, 역할, 타인의 평가, 소속감 등이 스스로를 규정하는데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Fiske et al., 1998).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앞서 2030세대의 주요 특성으로 언급된 '나를 위한' 선택과 집중은 독립적 자기관의 특성과 상당히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인생의 여러 선택지 중 하나로 결혼을 바라보며, 비혼을 지향하는 모습은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고 자기를 형성하는 상호의존적 자기관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전술한 바

와 같이 2030세대의 '나를 위한' 선택과 집중의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사회적 관심과 연대, 참여라는 중요한 키워드 역시 자리하고 있어 이를 단순하게 정의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일부 연구들에서는 독립적 자기관과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서로 배타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기보다는 개인 내에 공존하고 있으며, 오히려 어느 하나의 자기관으로 치우쳐 있는 것보다는 공히 두 자기관 모두 높게 발달된 개인이 심리적으로 적응적이라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양명순, 하정희, 2006; 현경자, 2010; 조미랑, 한종철, 2004). 그러나 이는 제한된 일부 결과로 추후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며, 특히 관계지향적인 연애와 결혼 경험에 있어 개인의 자기관 양상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다. 기혼자의 자기관과 결혼만족과의 관계(현경자, 2004), 이혼 등 생애위기 경험과 자기해석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현경자, 2010)가 보고되고 있으나, 기혼자 및 2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폭넓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2030세대 미혼남녀의 양상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편, 결혼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살펴볼 수 있는 개념으로 결혼가치관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결혼과 배우자 선택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김경신, 이선미, 1998)으로 가족가치관의 일부이면서 개인의 지향 및 태도를 반영한다(권인숙, 2003). 동시에 시대적, 사회적 신분 및 계급적 관계가 반영된 개념으로 개인의 실제 행동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결정과 행동을 유발하는 근원이 된다고 보았다(이지원, 2006).

결혼가치관은 유형에 따라 안정낭만적 결혼가치관, 보수도구적 결혼가치관, 소극배타적

결혼 가치관으로 나뉘는데(이보람, 2012), 안정 낭만적 결혼가치관은 결혼을 평생의 동반자를 만나 정서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이상적 경험으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반면, 보수도구적 결혼가치관은 안정낭만적 결혼가치관과는 달리 정해진 적령기에 출산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회로 결혼을 바라보며, 배우자에 대해 경제적 부양자, 출산 및 양육의 주체로 인식하는 관점이다. 마지막으로 소극배타적 결혼가치관은 결혼에 대한 소극적 관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혼보다는 일을 중시하고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보다 가치를 둔 관점을 의미한다. 소극배타적 결혼가치관이 높은 사람들은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날 것이라는 기대가 낮으며 그보다는 친구나 동료와의 관계를 보다 중시하며 결혼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선행연구들을 보면, 결혼을 바라보는 시각 및 결혼가치관은 다양한 요인들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성별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보면, 남성은 결혼에 대해 보다 긍정적, 전통적, 보수적 입장을 보이는 반면, 여성은 전통성과 현대성의 양립으로 인한 가치관의 혼재를 보이고 있다(문선희, 2012; 주나연, 2012). 즉, 오늘날 미혼여성은 높은 학력 수준에 기반해 남성과 동등해진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며 부부간의 평등성을 주장하는 현대적 부부관계 및 독립적 삶을 추구하는 결혼가치관을 보이는 한편, 사회적으로 불확실한 경제상황과 고용 불안 등을 경험하며 남편의 경제력에 의존하는 전통적, 가부장적 결혼가치관을 추구하는 모습 역시 보이고 있다. 또한 교육 수준에 따른 결혼가치관의 차이는 남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남성의 경우 높은 교육

수준이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관을 보이며 용이한 결혼진입의 조건으로 작용, 긍정적인 기대를 갖게 하는 반면(김두섭, 2007; 유홍준, 현성민, 2010; 원아름, 박정윤, 2016), 여성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길어진 교육기간으로 노동시장 진입연령 또한 늦춰지면서 결혼이 지연되거나 아예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경향이 증가하기 쉽다(이인수, 1994).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결혼가치관은 개인의 초기 경험이 형성되는 가족 내 가치관 뿐 아니라 성별이나 학력 수준 등 개인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이 맞물린 복잡한 역동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특히 결혼이라는 전통적 제도로의 편입에 어떠한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스스로를 어떤 존재로 규정하며 무엇에 삶의 가치를 둘 것인가에 대한 고려, 즉 자기관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타인과의 경계, 분리, 성공, 성취 등 독립적 자기관을 지향하는가 혹은 관계와 역할 부여, 친밀감 등 관계 지향적 목표에 가치를 둔 상호의존적 가치관을 지향하고 있는가에 따라 결혼가치관의 차이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경자(2004)는 개인이 지닌 독립적 자기관은 사적 자기의 개념을 촉진하여 강한 개인적 정체감을 부여하고, 자율성의 행사와 자유에 대한 욕구를 양성하므로, 독립적 자기관이 강할수록 전통적 결혼 생활에 대한 평가가 낮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반면, 상호의존적 자기관은 관계적 자기의 개념을 촉진하여 강한 사회적 정체감을 부여하고 관계지향적 욕구를 양성하므로,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강할수록 가족간의 연대와 친밀감을 강조하는 한국식 결혼생활에 대해 수용적일 뿐만 아니라 긍정적 평가를 내리기 쉬움을 제

안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자기관의 유형에 따라 결혼가치관에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보다 관계 지향적인 상호의존적 자기관을 지닌 사람이 독립적 자기관을 지닌 사람들에 비해 긍정적인 결혼가치관을 지니며 나아가 결혼의 향 역시 높을 것을 예상케 한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결혼가치관은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따라서 자기관과 결혼가치관의 단선적인 관계로 이를 설명하는 데는 제한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개인이 경험한 친밀한 관계 경험, 특히 젊은 남녀의 이성관계 경험은 자기관이 결혼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에서 일정 부분 설명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성교제 경험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결혼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목받아왔다. 즉 결혼 전의 이성관계 경험은 사회적 책임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결혼의사 뿐 아니라 배우자 선택과 향후 결혼생활에 대한 예측치를 제공한다(김진아, 2014; 민순옥, 2009; 이성희, 2008; 원아름, 2015). 또한 건강한 이성교제 경험은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발달시키며(이성희, 2008), 이성교제 여부가 결혼기대에 영향을 미치고 연애시의 친밀감 경험이 결혼 후의 부부관계 친밀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전영주, 2005), 결혼만족도의 중요한 예측치가 된다(이해숙, 2003).

한편, 이성과의 건강한 관계 경험의 근간으로 자기관과의 관련성을 살펴볼 수 있는데, 독립적 자기관을 구성하는 주요인은 자율성으로 개인이 자신의 욕구, 생각, 느낌 등을 인식하고 그러한 감정과 견해를 솔직히 표현하도록 격려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Markus &

Kitayama, 1991). 이는 곧 자존감의 근간이 되는 기능으로(Deci & Ryan, 1995, 현경자, 2004), 독립적 자기관에서 형성된 건강한 자존감과 적극적인 의사소통 방식은 대인관계, 특히 친밀감을 나누는 연인, 배우자와의 관계 질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배경이 될 수 있는 요소로, 긍정적인 이성관계의 토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현경자, 2004). 더불어 관계지향성을 특징으로 하는 상호의존적 자기관은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동기화하며(Fiske et al., 1998),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해 자기조절을 격려한다(Markus & Kitayama, 1991). 따라서, 관계적 자기 정체감이 높은 상호의존적 자기관 역시 긍정적인 이성관계의 토대가 될 수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즉, 독립적 혹은 상호의존적 자기관의 순기능은 좋은 이성관계의 질을 양산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으며, 좋은 이성관계의 경험은 이후 결혼가치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자기관과 결혼가치관과의 관계에서 독립적 혹은 상호의존적 자기관 유형 각각에 따른 단선적인 관계 구도보다는 긍정적인 이성관계 경험이 자기관과 결혼가치관 사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자기관과 이성관계, 결혼가치관 등의 변인들이 동시에 고려되어 진행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특히 미혼남녀의 자기관이 연애와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미혼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이들의 결혼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개인내적인 특성인 독립적, 상호의존적 자기관에 초점을 두고, 이러한 자기관이 결혼가치

관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이성교제 경험이 매개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온라인 전문사회조사기관을 통해 20대에서 30대 초반의 미혼 성인남녀 266명(남= 134, 여= 132)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평균 연령은 25.5세였다. 응답자의 학력분포를 살펴보면, 대졸이 143명(53.8%)으로 가장 많았고, 대제 83명(31.2%), 고졸이하 22명(8.3%), 대학원 재학이상이 18명(6.8%) 순이었다. 직업 분포는 정규직 109명(41%)이 가장 많았으며, 학생 88명(33.1%), 비정규직 22명(8.3%), 무직 40명(15.8%) 순이었으며, 남녀간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경제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서 '보통'으로 평가한 응답자가 150명(56.4%)으로 가장 많았으며, '낮은 편'으로 평가한 응답자가 59명(22.2%), '매우 낮은 편' 15명(5.6%)를 보였다. 반면 경제수준에 대한 '높은 편' 혹은 '매우 높은 편'으로 평가한 응답자 수는 42명(15.8%)이었다.

한편, 이성교제 경험여부의 경우 1회 이상이 222명(83.5%)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전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참여자가 44명(16.5%) 순이었다. 결혼의향에 대한 질문의 경우 전체 참여자 중 196명(74%)이 결혼의향이 있음으로 답하였다.

측정 도구

자기관 척도(Self-Constraint Scale)

Singelis(1994)가 개발하고 문혜신, 오경자가 번안하여 김보경(2003)이 사용한 자기관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기관 척도는 독립적 자기관 12문항, 상호의존적 자기관 12문항,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 Likert 척도로 평정, 점수가 높을수록 각 차원의 자기관이 강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독립적 자기관 .80, 상호의존적 자기관 .75이었다.

결혼가치관 척도

김혜영과 선보영(2010)이 제작한 '미혼여성들의 결혼 및 가족의식 조사'를 참고하여 이보람(2012)이 수정, 재구성한 결혼가치관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 3개 하위범주(안정 낭만적 결혼가치관, 보수도구적 결혼가치관, 소극배타적 결혼가치관)로 구성 되어있으며, 각 범주별 문항수는 6문항, 7문항, 7문항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 척도로,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순서대로 .65, .70, .69였다.

이성관계 경험(질) 척도

한국형 결혼만족도 척도(정현숙, 2001)에 기반하여 전영주(2005)가 수정·재구성한 후 원아름(2015)이 요인구조를 확인한 이성관계 경험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3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존중 및 지지(14문항), 공유 시간(6문항), 애정 및 성(4문항), 긍정적 의사소통(6문항), 부정적 의사소통 (4문항) 등 5개의 하위 범주가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서각 범주별 점수가 높을수록 이성관계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각 하위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존중과 지지 .95,

공유시간은 .88, 애정 및 성 .83, 긍정적 의사소통 .87, 부정적 의사소통 .88이며 전체 문항의 내적합치도는 .96이었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과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경로분석은 AMOS 16.0을 사용하였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빈도분석 및 척도들의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자기관과 결혼가치관, 이성관계 경험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t*-test,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각 변인들 간의 상관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인구학적 변인을 포함하여 자기관, 결혼가치관 및 이성관계 경험이 결혼의향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끝으로 독립적·상호의존적 자기관이 결혼가치관에 미치는 직접효과 및 이성관계 경험을 통해 결혼가치관에 기여하는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했다.

결 과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차이

성별에 따른 주요변인들의 차이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차이를 살펴보면 자기관의 경우, 독립적 자기관($t = 3.25, p < .01$), 상호의존적 자기관($t = 2.66, p < .01$) 모

두 남성이 여성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가치관 중 보수도구적 결혼가치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t = 4.47, p < .01$), 그 외 하위 변인들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표 1).

표 1. 성별에 따른 주요변인들의 차이

변인	남자	여자	<i>t</i>	
	(n=134)	(n=132)		
	M(SD)	M(SD)		
자기관	독립적	55.89	52.50	3.25**
	자기관	(8.16)	(8.87)	
	상호의존적	54.90	52.50	
결혼 가치관	자기관	(7.68)	(6.97)	2.66**
	안정	23.19	23.62	
	낭만적	(3.56)	(2.90)	
이성 관계 경험	보수	22.74	20.34	4.47**
	도구적	(4.13)	(4.62)	
	소극	22.52	23.38	
	배타적	(4.15)	(4.51)	
이성 관계 경험	존중/지지	50.10	50.83	-1.61
	(9.69)	(50.83)		
	공유시간	21.41	21.49	
	(3.72)	(21.49)		
	애정/성	14.18	13.78	
	(3.23)	(3.53)		
	긍정적 의사소통	21.39	21.05	
(3.88)	(4.62)			
부정적 의사소통	12.84	15.15	-5.73**	
(3.48)	(3.08)			
전체	119.92	122.30	-0.90	
(19.52)	(23.63)			

* $p < .05$, ** $p < .01$

이성관계 경험에 대한 보고의 경우 남녀 모두 대부분의 하위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예외적으로 부정적 의사소통 요인에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 참여자의 지각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 = -5.73, p < .01$).

학력 및 경제수준에 따른 주요변인들의 차이

먼저 학력 수준에 따라 주요 변인들의 양상을 살펴본 결과, 자기관의 경우 학력 수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한편, 남녀 성차와 학력수준이 자기관에 미치는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다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적 자기관의 경우 성차의 주효과($F = 17.10, p < .001$) 및 성차

와 학력 수준간의 유의한 상호작용효과($F = 7.06, p < .001$)가 관찰되었다.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독립적 자기관을 보이고 있었으며, 학력 수준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그에 반해 여성의 경우 고졸이하 집단에 비해 대학재학 이상의 집단에서 유의하게 높은 독립적 자기관을 보이고 있었다.

다음으로 결혼가치관의 경우 세 하위 요인 중 보수도구적 결혼가치관은 학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었는데,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보수도구적 결혼가치관이 유의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며($F = 4.75, p < .01$), 고졸 집단에 비해 대학원 재학 이상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성차와 학력 수준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 각각의 주효과만 관찰되었으며 변인들간의 상호

표 2. 학력에 따른 주요변인들의 차이

변인	고졸(n= 22)		대학재학(n=83)		대졸(n=143)		대학원이상(n=18)		F	
	M	SD	M	SD	M	SD	M	SD		
자기관	독립적 자기관	51.18	11.77	55.41	7.93	53.84	8.54	55.28	8.15	1.61
	상호의존적 자기관	51.00	7.92	53.20	7.31	54.20	7.43	55.44	6.82	1.65
결혼 가치관	안정낭만적	22.64	2.54	23.28	3.34	23.50	3.41	24.17	2.04	.82
	보수도구적	20.60 [†]	4.47	20.29 ^{ab}	4.66	22.17 ^{ab}	4.36	23.56 ^b	3.63	4.75 ^{**}
	소극배타적	23.18	2.95	23.31	4.66	22.81	4.38	22.06	4.04	.51
이성 관계 경험	존중/지지	48.00	8.17	50.43	10.75	50.13	10.33	56.17	8.77	2.35
	공유시간	19.14 ^a	5.18	21.37 ^{ab}	4.63	21.52 ^{ab}	4.32	24.06 ^b	3.57	4.06 ^{**}
	애정/성	13.86	3.55	13.94	3.48	13.94	3.35	14.61	3.20	.23
	긍정적 의사소통	20.18	3.70	21.36	4.40	21.10	4.27	22.83	3.96	1.37
	부정적 의사소통	13.77	3.09	14.06	3.43	13.94	3.58	14.28	3.54	.09
	전체	114.95	19.43	121.17	22.30	120.64	21.66	131.94	18.57	2.15

* $p < .05$, ** $p < .01$

† a,b는 scheffe사후검증 결과 a<b, ab는 a와도 b와도 차이 없음

표 3. 경제수준에 따른 주요변인들의 차이

변인	높은편 (n=42)		보통 (n=150)		낮은편 (n=74)		F	
	M	SD	M	SD	M	SD		
자기관	독립적 자기관	59.81 ^{a†}	9.09	53.11 ^b	7.72	53.24 ^b	9.13	11.22 ^{**}
	상호의존적 자기관	55.64	8.22	53.29	7.90	53.44	7.37	1.72
결혼 가치관	안정낭만적	24.00	3.11	23.18	3.15	23.52	3.52	1.12
	보수도구적	22.24	4.41	21.29	4.35	21.67	4.95	.75
	소극배타적	23.07	4.83	22.75	4.12	23.27	4.52	.37
이성 관계 경험	존중/지지	52.50	10.27	50.51	9.74	49.18	11.29	1.40
	공유시간	22.07	4.32	21.47	3.98	21.06	5.58	.67
	애정/성	14.86	3.18	13.88	3.17	13.69	3.84	1.78
	긍정적 의사소통	22.43	3.81	21.24	3.94	20.50	4.95	2.79
	부정적 의사소통	13.50	3.80	14.04	3.38	14.16	3.51	.52
	전체	125.16	20.01	121.14	20.27	121.27	24.75	2.09

** $p < .01$

† a,b는 scheffe사후검증 결과 $a > b$, ab는 a와도 b와도 차이 없음

작용효과는 관찰되지 않아, 여성에 비해 남성이,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보수도구적 결혼가치관을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이성관계 경험에 대한 평가에서는 공유시간 변인에서만 학력에 따른 차이를 보여 남녀 모두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 집단이 고졸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많은 공유시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F = 4.06, p < .01$). 성차와 학력수준 사이의 상호작용효과는 이성관계 경험에 대한 보고에서 관찰되지 않았다.

한편, 경제 수준에 따른 주요 변인들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우선 자기관의 경우 독립적 자기관에서 경제수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어 경제수준이 높은 집단이 보통 및 낮은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수준의 독립적

자기관을 보이고 있었다($F = 11.22, p < .001$).

성별의 차이와 경제수준이 자기관에 미치는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다변량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으나, 각 변인의 주효과외에 상호작용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결혼가치관의 경우, 참여자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경제수준에 따른 결혼가치관의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성별의 차이와 경제수준이 결혼가치관에 미치는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다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보수도구적 결혼가치관 하위요인에서 성차에 따른 주효과($F = 22.14, p < .001$) 및 성차와 경제수준의 상호작용효과($F = 2.83, p < .05$)가 관찰되었다. 남성의 경우 경제수준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보수

도구적 결혼가치관이 높은 반면, 여성의 경우 경제수준은 보수도구적 가치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특히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보수도구적 결혼가치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관계 경험에 대한 보고의 경우 모든 하위변인에서 경제수준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성별의 차이와 경제수준이 이성관계경험에 미치는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다변량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으나, 부정적 소통 하위변인에서만 성별에 따른 주효과가 관찰되었으며 그 외 변인들에서는 유의한 결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결혼의향 예측을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참여자의 결혼의향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인구학적 변인과 자기관, 결혼가치관, 이성관계 경험 등 주요 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보기 위해 Hosmer-Lemeshow의 모형 검증을 실시한 결과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chi = 3.531, p = .897$), 분류 정확도는 84.2%였다. 자세한 결과는 <표 4>

에 제시되어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인구학적 변인 중 이성교제 경험 빈도 및 학력 수준은 유의하게 결혼의향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경우 이성교제 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2배 이상의 결혼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 수준의 경우에도 결혼의향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대학재학의 학력 수준을 가진 사람들은 고졸 이하의 학력 수준에 비해 13배 가량 결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B = 2.583, p < .001$), 대학원 재학 이상의 고학력 집단의 경우 고졸집단에 비해 33배 이상 높은 결혼의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B = 3.497, p < .01$).

다음으로 이성관계 경험의 경우, 애정 및 성 하위변인은 유의하게 결혼의향을 예측하고 있으며($B = .137, p < .05$)는, 특히 안정낭만적 결혼가치관($B = .149, p < .05$), 보수도구적 결혼가치관($B = .182, p < .001$)은 각각 1.16배, 1.20배 높은 결혼의향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극배타적인 결혼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결혼의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결혼의향 예측변인 탐색을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B	S.E	Wald	df	Exp(B)	95% 신뢰구간
인구학적 변인	이성교제경험	1.021*	.512	4.0088	1	2.778	1.022 - 7.551
	학력(1): 고졸 vs 대재	2.583***	.686	14.160	1	13.243	3.448 - 50.860
	학력(2): 고졸 vs 대졸	2.460***	.646	14.384	1	11.710	3.284 - 41.763
	학력(3): 고졸 vs 대학원이상	3.497**	1.293	7.270	1	33.006	2.599 - 419.237
이성관계 경험	애정/성	.137*	.068	3.969	1	1.147	1.002 - 1.313
	안정낭만적	.149*	.063	5.296	1	1.161	1.022 - 1.318
	보수도구적	.182***	.058	12.873	1	1.200	1.086 - 1.326
결혼 가치관	소극배타	-.298***	.061	26.219	1	.742	.662 - .832

다($B = -.298, p < .001$).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자기관 및 결혼가치관, 이성관계 경험 등 주요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독립적 자기관은 상호의존적 자기관($r = .40, p < .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소극배타적 가치관을 제외한 모든 결혼가치관 하위요인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 = .23 \sim .35, p < .01$). 이성관계 경험의 경우에도 부정적인 의사소통을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들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어($r = .26 \sim .40, p < .01$), 독립적인 자기관을 지닌 사람들은 긍정적인 이성관계 경험 및 안정낭만적, 보수도구적 결혼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호의존적 자기관 역시 독립적 자기관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는데, 결혼가치관 중 소극배타적 가치관 외에 모든 하위 요인들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 = .28 \sim .37, p < .01$). 이성관계 경험 역시 부정적 의사소통을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들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어($r = .25 \sim .30, p < .01$), 상호의존적인 자기관을 지닌 사람들은 긍정적인 이성관계 경험 및 안정낭만적, 보수도구적 결혼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모형 검증

독립적/상호의존적 자기관이 결혼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모형을 설정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았다. 모형적합도는 $TLI = 1.003, CFI = 1.000, RMSEA = .000$ 으로 적합하였다(표 6). 경로모형의 각 경로계수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독립적 자기관의 경우 보수도구적 결혼가치관에 유의한 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beta = .21, p < .001$), 그 외 변인들에 대해서는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상호의존

표 5. 주요변인들간의 상관

	1	2	3	4	5	6	7	8	9	10
독립적 자기관	1									
상호의존적자기관	.40**	1								
안정낭만적결혼가치관	.34**	.29**	1							
보수도구적결혼가치관	.29**	.37**	.16**	1						
소극배타적결혼가치관	.07	-.09	-.07	-.28**	1					
존중/지지	.26**	.29**	.45**	.27**	-.30**	1				
공유시간	.40**	.25**	.46**	.29**	-.26**	.72**	1			
애정/성	.35**	.30**	.42**	.24**	-.23**	.69**	.73**	1		
긍정적 의사소통	.32**	.30**	.44**	.23**	-.24**	.87**	.72**	.67**	1	
부정적 의사소통	-.05	-.04	.28**	-.08	-.23**	.35**	.16*	.10	.25**	1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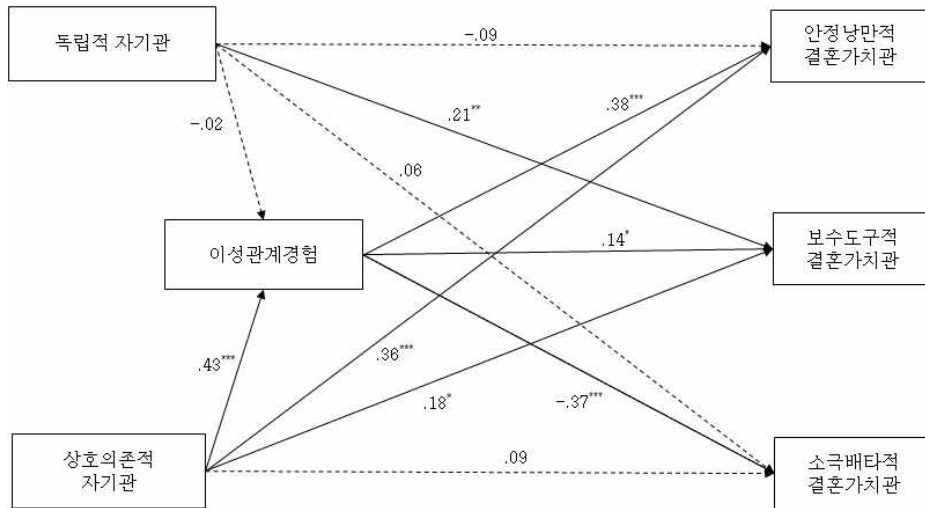


그림 1. 자기관이 결혼가치관에 미치는 효과

표 6. 적합도

χ^2	df	P	TLI	CFI	RMSEA(90%신뢰구간)
1.867	2	0.393	1.003	1.000	.000(.000~.119)

표 7. 경로계수

경로		B	β	S.E	t
독립적자기관	→ 이성관계경험	-.05	-.02	.19	-.23
상호의존적자기관	→ 이성관계경험	1.16	.43	.18	6.41***
이성관계경험	→ 안정낭만적	.06	.38	.01	6.89***
이성관계경험	→ 보수도구적	.03	.14	.01	2.27*
이성관계경험	→ 소극배타적	-.07	-.37	.01	-5.79***
독립적자기관	→ 안정낭만적	-.04	-.09	.03	-1.56
독립적자기관	→ 보수도구적	.13	.21	.04	3.14**
독립적자기관	→ 소극배타적	.03	.06	.04	.84
상호의존적자기관	→ 안정낭만적	.15	.38	.03	5.59***
상호의존적자기관	→ 보수도구적	.10	.18	.04	2.46*
상호의존적자기관	→ 소극배타적	.05	.09	.04	1.24

* $p < .05$, ** $p < .01$, *** $p < .001$

적 자기관은 안정낭만적 결혼가치관($\beta=.38, p<.001$), 보수도구적 가치관($\beta=.18, p<.05$) 모두에 유의한 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어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높을수록 결혼을 통한 안정된 삶과 정서적 지원, 친밀감 등을 보다 더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극배타적 결혼가치관에는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독립적 자기관이 이성관계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 못한 데 반해, 상호의존적 자기관은 이성관계 경험에 있어 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43, p<.001$). 한편, 이성관계 경험에서 관계의 질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안정낭만적($\beta=.38, p<.001$), 보수도구적 결혼가치관($\beta=.14, p<.05$)은 증가하는 반면, 소극배타적 결혼가치관($\beta=-.37, p<.001$)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관계 경험의 매개효과 검증

독립적 자기관과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결혼가치관 하위요인 각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이성관계 경험이 갖는 간접효과를 검증하

기 위해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간접효과의 표준오차를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하는 방식으로, 간접효과 측정치의 신뢰구간 내에 0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간접효과의 유의성이 인정되는 방식이다(Shrout & Bolger, 2002). 이러한 간접효과 추정 방식을 실행하기 위하여 Chan(2007)이 제안한 개별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방법을 이용, 독립적 자기관 및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이성관계 경험을 통해 결혼가치관 각각에 미치는 간접효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가 <표 8>과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독립적 자기관이 결혼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이성관계 경험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결혼가치관의 모든 하위 변인들에 미치는 간접효과 측정치의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어 있어, 유의한 간접효과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즉, 독립적 자기관은 보수도구적 결혼가치관에만 유의한 직접 효과를 보일 뿐 그 외 결혼가치관 하위 변인들에는 직접효과 및 이성 관계 경험을 통한 간접효과 모두 보이지

표 8. 독립적 자기관과 결혼가치관과의 관계에서 이성관계경험의 간접효과 부트스트래핑 결과

경로			매개효과(95%신뢰구간)
독립적자기관	→	이성관계경험 → 소극배타적결혼가치관	0.006(-.054~.063)
독립적자기관	→	이성관계경험 → 보수도구적결혼가치관	-0.002(-.035~.016)
독립적자기관	→	이성관계경험 → 안정낭만적결혼가치관	-0.006(-.066~.056)

표 9. 상호의존적 자기관과 결혼가치관과의 관계에서 이성관계경험의 간접효과 부트스트래핑 결과

경로			매개효과(95%신뢰구간)
상호의존적자기관	→	이성관계경험 → 소극배타적결혼가치관	-0.157(-.257~-.08)
상호의존적자기관	→	이성관계경험 → 보수도구적결혼가치관	0.06(.001~.149)
상호의존적자기관	→	이성관계경험 → 안정낭만적결혼가치관	0.161(.098~.244)

않고 있다. 반면, 상호의존적 자기관의 경우, 이성관계 경험을 매개로 결혼가치관 하위 변인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확인한 결과 소극배타적 결혼가치관을 제외한 보수도구적 결혼가치관($\beta = .06, 95\% CI = .001 \sim .149$), 안정낭만적 결혼가치관($\beta = .161, 95\% CI = .098 \sim .244$) 모두에서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고 있어 유의미한 간접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이는 상호의존적 자기관을 가진 사람들이 이성관계에서 보다 긍정적 경험을 보고하며, 이는 다시 안정낭만적 결혼가치관을 상승시키고 보수도구적 결혼가치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20~30대 미혼 남녀 266명을 대상으로 자기관이 결혼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이성관계 경험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진행되었다. 자율성의 행사와 자유에 대한 욕구를 특징적으로 하는 독립적 자기관과 관계속에서의 자기 개념 및 관계지향적 욕구를 특징으로 하는 상호의존적 자기관 각각이 결혼가치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이 사이에 이성관계 경험이 갖는 설명량을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성별, 학력, 경제 수준 등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자기관, 결혼가치관 등 주요변인에서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자기관의 경우 독립적 자기관 및 상호의존적 자기관 모두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획득하고 있었다. 자기관에 대한 초기 개념에 따르면 독립성과 관계성에 근거한 자기해석에 남녀 성차를 보일 수 있으며 대체로 남성이 독립적인

자기관이 두드러지는 반면, 여성이 가사와 자녀양육, 가족 간의 유대 등을 중시하며 상호의존적 자기관을 발달시킨다고 알려져 왔다 (Maccoby, 1990; Gilligan, 1982). 그러나 한편에서는 현대사회가 남녀 모두에게 양성적 역할을 기대, 장려하는 경향이 높아져(이영미, 김정희, 1997), 이전 세대와 달리 여성에게는 독립적 자기관의 확대를, 또 남성에게는 상호의존적 자기관의 확대를 예상해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지적에 근거해서 바라볼 때, 본 연구에서 여성에 비해 남성에게서 독립적 자기관 및 상호의존적 자기관 모두 유의미한 상승을 보인 점은 2030 세대 남성집단의 성역할 내지 양성평등의식의 변화가 이전 세대와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유추케 한다. 실제로 최근 양성평등교육원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양성평등 교육의 효과는 나이가 어릴수록,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보다 의식개선 효과가 두드러짐을 제안하고 있는 바(한영혜, 2018), 본 연구 결과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결혼의향을 예측하기 위해 인구학적 변인 및 자기관, 결혼가치관, 이성관계 경험 등 주요 변인들을 투입하여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이성관계 경험 유무 및 학력수준 변인은 결혼의향을 예측하는 주요 인구학적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즉, 이성관계 경험이 있는 경우, 대학재학 이상의 높은 학력 수준을 가질수록 유의미하게 결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학력수준은 결혼의향에 대한 강한 예측력을 보였다. 반면, 자기관은 두 유형 모두 결혼의향을 예측하지 못하였으며 이성관계경험 중 애정과 성 요인만이 결혼의향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결혼가치관의 세 하위

유형은 정적, 부적으로 결혼의향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안정낭만적/보수도구적 결혼가치관은 모두 정적으로 결혼의향을 예측하는 반면, 소극배타적 결혼가치관은 부적으로 결혼의향을 예측하였다. 즉, 소극배타적 결혼가치관이 높을수록 결혼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셋째,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독립적 자기관은 상호의존적 자기관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두 유형의 자기관이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닌 개인 내에 공존하며 서로 보완하는 두 요소라는 점을 뒷받침해준다. 더불어, 두 자기관 모두 긍정적인 이성관계 경험, 안정낭만적 결혼가치관, 보수도구적 결혼가치관 모두와 각각 정적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한편 소극배타적 결혼가치관은 이성관계 경험 전반에 걸쳐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어, 결혼 뿐 아니라 연애관계, 이성 관계 경험에 대한 평가에서도 모두 부정적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자기관이 결혼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 대한 경로 분석 결과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강한 개인이 부정적 이성관계를 경험할 경우 유의하게 소극배타적 결혼가치관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 젊은 세대의 결혼관, 결혼의향을 높이는데 있어 무엇보다 건강한 연애와 양질의 이성관계 경험이 선행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자기관 유형이 결혼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를 좀더 살펴보면, 독립적 자기관의 경우 보수도구적 결혼가치관에는 직접적인 정적 효과를 보이는 반면, 그 외 결혼가치관 하위 요인에 대해서는 직접효과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성관계 경험을 통한 간접효과 역시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독립적 자기

관이 보수도구적 결혼가치관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량을 지니는 반면, 두 변인 사이에서 이성관계 경험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바, 독립적 자기관이 강한 사람들에게 결혼은 여전히 관습적인 의례, 자녀출산과 같은 과업 수행의 측면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의 결혼 선택과 가족의 형성 역시 이러한 과업 수행의 일환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현경자(2010)에 따르면 기혼자의 심리적 안정 및 결혼만족에 있어 독립적 자기관 뿐 아니라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모두 발달한 복합적 자기관의 발달이 중요한 바, 독립적 자기관이 좀더 뚜렷한 개인에게 상호의존적 자기관을 보완하고 양질의 관계 경험을 쌓아갈 수 있는 역량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상호의존적 자기관은 결혼가치관의 하위 요인 중 소극배타적인 결혼가치관을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에 직접효과를 보일 뿐 아니라, 이성관계 경험을 통한 간접효과 모두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은 결혼가치관 유형에 상관없이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성관계 경험이 이러한 경향성을 더욱 공고히 하는 양상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상호의존적인 자기관은 평생의 동반자를 만나 정서적인 안정을 원하는 안정낭만적 결혼가치관과 정적인 관련성을 보이고 있어, 두 사람만의 관계 중심, 애정 중심의 관계를 지향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들에게는 사회적 지위, 역할, 관계 등 외적인 특성 외에도 집단에서 적절한 위치에 속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며, 의사소통에 있어 간접적이고 타인의 감정과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특성이 결혼 및 가족 형성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2030 젊은 세대의 결혼의향 및 결혼가치관 형성에 있어 자기관의 두 유형이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며 이성관계의 경험이 이를 매개하는지를 검증하려 하였다. 개인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추구하는 독립적 자기관과 관계 중심적인 상호의존적 자기관은 결혼의향과 결혼가치관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연구 결과 일부에서만 이러한 견해가 받아들여졌다. 우선적으로 두 자기관 모두 결혼의향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고 있어 자기관이 직접적으로 결혼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경로분석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상호의존적 자기관은 안정낭만적/보수도구적 결혼가치관 모두에 직접적인 설명력을 가지며 결혼에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며, 특히 양호한 이성관계 경험을 통해 긍정적인 결혼가치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미혼남녀의 건강한 이성관계 형성과 유지가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를 양산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올 수 있는 바, 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예를 들면, 긍정적인 의사소통 기술의 함양 및 파트너와의 공유시간 계획, 적절한 애정표현 및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독립적 자기관은 보수도구적 결혼가치관을 제외한 다른 두 결혼가치관 모두에 유의미한 직간접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다. 사회적 영역과 개인적 가치를 중시하는 독립적 자기관을 가진 사람들이 결혼에 보다 소극적이고 배타적일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관습적인 의례, 혹은 과업 수행과 같은 중립적이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결혼을 바라보고 있음을

짐작케한다. 즉, 이는 독립적인 자기관을 지닌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 지나치게 이상화하거나 혹은 무조건적으로 배척하기 보다는 발달과업 중 하나로 바라보는 현실적인 시점을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바,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통해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20대~30대 초반의 미혼 성인을 대상으로 지역의 구분 없이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좀 더 많은 대상으로 두고 지역별, 직종별 등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른 자기관, 결혼가치관과 결혼이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오늘날 결혼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각자의 경제적 배경 및 직업, 원가족으로부터의 지원 등과 같은 물리적 여건 역시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둘째, 독립적 자기관과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결혼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이성관계의 경험만을 두고 보았는데, 결혼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데는 이성관계 경험 외에 다양한 변인들이 존재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성관계 경험 외에 다양한 변인들을 추가,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본 연구는 결혼가치관에 있어 독립적 자기관과 상호의존적 자기관의 개별적 역할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었으나, 이 두 유형의 자기관은 개인 내에 다양한 형태로 통합되어 존재할 수 있다. 또한 독립적 자기관과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서로에게 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높은 독립적 자기관이 상호의존적 자기관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각 개인에게 내재되어 있는 자기관의 비율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두 자기관의 통합유형에 따라 결혼 가치관이나 결혼의향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초혼 연령이 증가하고 젊은 층 사이에 결혼에 대한 욕구가 감소하면서 비혼 세대가 증가하는 사회적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현실적인 변인을 투입해 설명하는 데 본 연구의 의의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권인숙 (2003). 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성의식 및 결혼관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신, 이선미 (1998). 미혼남녀의 결혼관에 나타난 결혼 이데올로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 27-43.
- 김동직, 한성열 (1997). 한국 대학생의 애착유형 분포와 대인관계 특성. 한국심리학회: 사회 및 성격, 11(2), 91-109.
- 김두섭 (2007). IMF 외환위기와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의 변화. 한국인구학, 30(1), 67-95.
- 김보경 (2003). 독립적-상호의존적 자기관과 사회불안-공적 자의식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아 (2014). 미혼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 관계와 사랑·결혼에 대한 태도 및 결혼의사의 관계.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훈. 출산을 즐었다고? 2030 혼인가구는 늘었다. 경향신문. 2019년 1월 5일자.
- 김혜영, 선보영 (2011). 여성의 만혼화와 결혼의향-결정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 12(2), 3-35.
- 문선희 (2012). 미혼여성의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결혼의향과 기대결혼연령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7(3), 5-25.
- 민순옥 (2009).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과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이성관계 태도가 결혼태도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양명순, 하정희 (2006). 자아해석 방식이 우울 및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 갈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7(2), 85-105.
- 원아름, 박정윤 (2016). 이성교제 중인 미혼남녀가 지각하는 가족건강성 및 이성교제관계의 질과 결혼이미지가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가족치료, 24(1), 145-166.
- 원아름 (2015). 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결혼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가호 (1988). 청년기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부부상호작용과 자녀의 부모에 대한 동일시 및 자녀의 결혼태도 간의 관계: 대구시 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유홍준, 현성민 (2010). 경제적 자원이 미혼남녀의 결혼 연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33(1), 75-101.
- 이보람 (2012). 대학생들의 결혼 및 출산의식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삼식 (2006). 가치관의 변화가 결혼 및 출산

- 행태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26(2), 95-140.
- 이성희 (2008). 대학생의 결혼기대와 영향요인.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4(2), 124-130.
- 이영미, 김정희 (1997). 성역할 정체감, 사회적 지지 및 일상적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와 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및 심리치료, 9(1), 351-365.
- 이인수 (1994). 韓國 女性の 결혼전이 時期 研究: 생애과정관점으로 본 결혼전이 시기 결정요인.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지원 (2006). 가족기능이 대학생의 결혼관 및 자녀관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은 (1996). 청년기 자녀가 지각한 부-모간 상호작용과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이 자녀의 결혼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이혜숙 (2003). 남녀 대학생의 원가족 정서성과 결혼신화와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시현. 빅데이터로 2030세대 마음 속을 들여다보니 . . . 인더스트리뉴스. 2017년 12월 28일자.
- 전영주 (2005).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분화와 이성교제 관계의 질, 결혼기대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은주, 박현정. 출산율 '1명' 사상 첫 붕괴... OECD 회원국 중 유일. 한겨레신문. 2019년 2월 28일자.
- 조미량, 한종철 (2004). 문화적 자기관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연구.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4(1), 397-398.
- 조은영, 임성문 (2012). 자아해석과 주관적 안녕감 및 우울간의 관계: 인지적 유연성, 자기개념 명확성의 매개효과와 자기복잡성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2), 493-519.
- 주영희, 정은숙, 심문숙 (2013). 대학생들의 결혼 및 자녀 가치관과 성태도 관련성 연구,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2013 Sep; 11(9): 267-278
- 주나연 (2012). 미혼남녀의 결혼관과 출산의지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영미, 박운환 (2019).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변화 분석과 저출산 원인의 유형화. 시민인문학, 101-137.
- 통계청 (2019). 2018년 출생, 사망통계 잠정 결과. 통계청 홈페이지.
- 한영혜 (2018). 남·녀 양성평등교육, 어릴수록·남학생에 더 큰 효과. 중앙일보. 2018년 3월 21일
- 한창식. 저출산정책,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 프레시안. 2019년 6월 17일.
- 현경자 (2004). 기혼남녀의 자기관과 결혼만족의 관계 - 독립 및 상호의존적 자기관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학, 56(4), 239-268.
- 현경자 (2010). 중도장애, 이혼과 같은 생애위기 경험자의 자기해석 복잡성과 심리적 안녕 - 관점의 다각화, 자기수용, 자기조절의 매개효과. 한국사회복지학, 62(4), 193-222.
- 홍성애, 윤희려 (2012). 대학생의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가치관 연구. 보건의료산업학회지, 6(3), 197-208.
- Chan, W. (2007). Comparing Indirect Effects in SEM: A Sequential Model Fitting Method Using Covariance-Equivalent Specification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4(3), 326 - 346.
- Deci, E., & R. Ryan (1995). *Intrinsic Motivation*

-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Plenum Press.
- Eagly, A. H. (1987). *Sex differences in Social Behavior: A Social-role Interpretation*.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Fiske, A., S. Kitayama., H. Markus, & R. Nisbett (1998). Cultural Matrix of Social Psychology edited by Gilbert, D., S. Fiske & G. Lindzey, Boston, MA: McGraw Hill.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2(4), 915-981.
- Gilligan, C. (1982).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73361(검색일: 2019. 7.8)
- Maccoby, E. E. (1990). Gender and Relationships: A Developmental Account. *American Psychologist*, 45(4), 513-520.
- Markus, H.,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2), 224-253.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inglis, T. M. (1994). The measurement of Independent and Interdependent Self-Construc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0(5), 580-591.
- 1차원고접수 : 2019. 07. 21.
심사통과접수 : 2019. 12. 11.
최종원고접수 : 2019. 12. 29.

The Effects of Self-Construals of Single Males and Females on Marital Values: Mediating Effect of Dating experience

Sukyoung Kim

Sinmyung middle school

Seung-mi Choi

Kwangwoon University

This study has investigated the mediating effects of heterosexual dating experiences on the relations between self-construals and marital values of 266 single males and females (134 males and 132 females) in their 20s and early 30s. As a result, first,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self-construals, marital value, and dating experiences according to demographic variables such as gender, education, and economic level. Secon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main factors for predicting marital intention, the heterosexual dating experience, educational level, and marital values predicts marital intention significantly. The marriage intention was high. Third, as a result of conducting path analysis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dating exper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struals and marriage value of single males and females, interdependent self-construals influenced marital values through the experience of heterosexual relationship. Independent self-construals, on the other hand, had a direct effect on conservative marital value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marital values differed according to the types of self-construals, and interdependent self-construals predicted the formation of a positively positive marital-values through a healthy dating relationship experiences.

Key words : single males and females, self-construals, marital value, dating relationship experiences.